

확장된 기능주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nded functionalism

이 병 증
한국과학기술원

1. 머릿말	1. Introduction
2. 확장된 기능주의의 발달과정	2. Developing Era to the extended Functionalism
3.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	3. Theories of the extended Functionalism
3.1. 요헨 그로스의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	3.1. Jochen Gros' extended Functionalism
3.2. 베른트 뢰바하의 상품기능 이론	3.2. Bernd Loebach's Theory of the Product Function
3.3. 오펜바하 조형대학의 상품언어이론	3.3. Theories of the Product Language in the Graduate School Offenbach a.M.
4.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의 영향	4. Influence of the extended Functionalism
5. 맺음말	5. Conclusion
6. 참고서적	6. References

기능주의, 기능주의 비판, 확장된 기능주의
실제적 기능, 이론적 기능, 생태적 기능,
(형태)미적 기능, 지시적 기능, 상징적 기능

Functionalism, Criticism of the Functionalism,
Extended Functionalism, Practical Function,
Theoretical Function, Ecological Function, (Formal-)
Aesthetical Function, Indicating Function, Symbolical
Function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후기 자본주의 사회적 이의의 관심속에서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불리우는 통속적 기능주의가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 통속적 기능주의는 오로지 비인간적 상업주의만을 반영함으로써, 정신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만을 야기시켰다. 그 결과로, 60년대 중반에, 독일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68 운동으로서) 기능주의 비판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기능주의 비판운동은 70년대에도 지속되어져, 확장된 기능주의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확장된 기능주의는 대량생산-대량소비사회의 사용과정 속에서의 기능들의 개념정의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그리고 이 기능들, 즉 실제적 기능, 이론적 기능, 생태적 기능, (형태)미적 기능, 지시적 기능, 상징적 기능은 오늘날 독일 디자인 실무분야에서 분석과 개발과정에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왔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vulgar functionalism, which was called as the international style, was developed in the interest of the post capitalistic society. The vulgar functionalism reflected only inhuman commercialism and brought to psycho-mental and social problems. By the result in the mid-sixties the criticism movement of the functionalism had began as a kind of the 68-movement in the german architecture and design scene. And it went on in the seventies, and ha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forming of the extended functionalism. The extended functionalism 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functions in the using process of the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society. Those functions, viz. Practical Function, Theoretical Function, Ecological Function, (Formal-)Aesthetical Function, Indicating Function, Symbolical Function, have been the core criteria in the analysis and developing phase of the todays' german design scene.

1. 머릿말

19세기 중반부터 산업화에 의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회의 변화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기능주의의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기능주의는 그 어느 곳보다 특히 독일에서 활성화 되고, 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영국의 영향을 받은 고프리트 쎬퍼(Gottfried Semper)와 아돌프 로스(Adolf Loos)에 의하여 기능주의의 운동이 시작되고, 헤르만 무테지우스(Hermann Muthesius)에 의하여 기능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마련되었다. 그 후 무테지우스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기능주의는 현대 건축과 디자인 이론으로 확립되고, 또한 그에 의해 설립된 바우하우스(Bauhaus)에서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바우하우스 교육이념을 계승한 울름 조형대학(Hochschule fuer Gestaltung Ulm)은 바우하우스 기능주의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미국화(Amerikanisierung)에 의한 후기자본주의적 대량생산-소비사회로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행과정 속에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그 속에서 후기자본주의적 모순에 의해 총체적인 사회문제들이 심각하게 야기되었다. 그 결과로서 1968년을 전후로, 68운동이라고 일컫는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경제체제와 사회구조에 반대하는, 전 사회적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68운동은 인본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말살된 개인성 회복을 추구하는 일련의 범 사회적 문화운동으로서, 이 68운동이 예술분야에서는 반예술(Anti-Kunst)운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68 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변혁운동들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 속에서 래디컬 디자인(Radical Design)이나 안티 디자인(Anti-Design) 혹은 카운터 디자인(Counter Design)이라고 불리우는 이탈리아에서의 건축과 디자인 운동, 그리고 서독에서의 기능주의 비판운동이 그 대표적인 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래디컬 디자인 운동이나 기능주의 비판운동 모두 공통적으로 당시의 제도권 하(下)에서 지배적이었던 통속적 기능주의(Vulgaer-Funktionalismus)에 반대하여 일어난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나라가 갖는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너무나도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에서는 기능주의의 비판운동의 이해에 중심을 이루는 68운동의 배경과 그 운동이 지향한 이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당시 기능주의의 비판운동에서 실제 비판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어떠한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는지 고찰함으로써, 기능주의의 비판운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한다. 또한 이론이 기능주의의 비판운동 이후 오늘날의 서독 디자인이론사와 디자인 실무분야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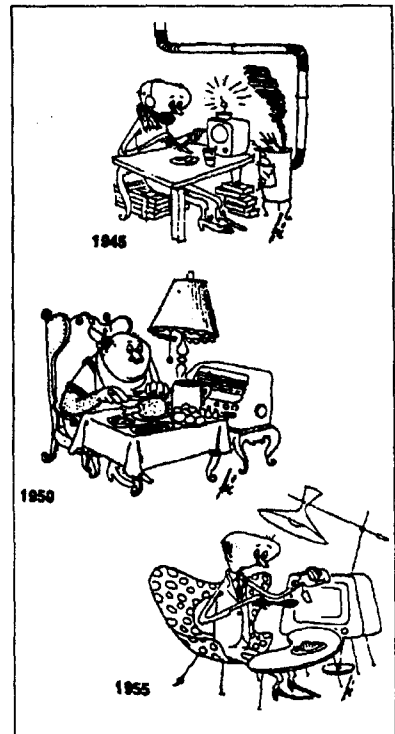
2. 확장된 기능주의로의 발달과정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BRD, 이하 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두개의 정치경제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1947년 미국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냉전시대의 선포로 이해되는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이 발표되자, 연합국 점령하에 있던 독일은 미국의 대외정치에서 소련을 중심으로한 공산주의 진영에 대치한 냉전의 최전선(Front)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기초로 단일화된 자본주의적 경제구조 건설을 목적으로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에 의해, 1948년 6월 20일 독일의 연합국 점령지에서 화폐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연합국 점령지에서 미국 달러경제를 기초로한 경제적 통일화를 이루고 동쪽의 소련 점령지를 완전히 분리시켰다. 이러한 화폐개혁과 마셜 플랜에 따른 원조에 의해 연합국 점령지에서는 산업의 복구가 빠르게 진전되었고, 또한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문화에까지 미국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층민들로부터 일어난 나치제거작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졌다. 전쟁 주범자로 판결받았던 나치시대의 정치가와 경영가 그리고 대자본가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각자 그들의 종전위치로 돌아갔다. 반면에 만나치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전쟁 이후 기층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반독재 및 반자본주의 움직임들은 탄압되거나, CIA에서 지원된 이른바 자유주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사라져 갔다. 이로써 연합국 점령지의 국민들은 1949년 5월 다시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기초로, "모든이에게 복지(Wohlstands fuer alle)"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등장한 서독정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졌다.

마셜 플랜의 진행에 따라 위에서부터의 시장경제적 지원은 급속한 서독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1950년에 이미 산업생산적 측면에서 전쟁 이전 나치시대의 생산성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전 세계적인 투자확대가 일어나자, 중공업 중심인 서독의 수출산업은 그 어느나라보다 특히 호황을 이루었고, 경제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60년에는 드디어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산업생산국이 되고, 1961년에는 세계 제 1의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라 서독국민들의 생활은 급속도로 윤택해져, 새로이 수평적으로 평준화된 중간계층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 생활향상으로 희망에 찬 중간계층의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이에게 복지"이라는 구호 속에서 미국화된 소비사회에 이끌려졌다. 반면에 사회적인 의식을 갖고있는 자들은 탄압되어지고 대중으로부터 격리되어지는 한편, CIA에 의해 지원되는 신문과 잡지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들, 또한 많은 교회들과 출판물들에서 냉전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선전하면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를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그려내었다. 이제 서독에서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소비사회는 좋은 점만있는



1950년대 코카콜라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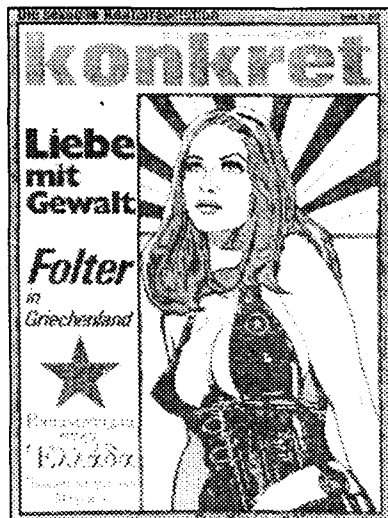
에른스트 휴틀리만(Ernst Huellmann)의 풍자 만화 "무언(ohne Worte)"



슈피겔(Der Spiegel) 1973년 제 2호의 표지



1969년 3월 30일 에센(Essen)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를 위해 열린 "(붉은)별행진(Sternmarsch)"



콘크리트(Konkret) 1969년 제 25호 표지 "성적 반혁명(Die sexuelle Konterrevolution)"

낙원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지상낙원 미국에서 넘어온 것은 어떤 것이든 환영되고, 따라서 유행되어졌다. 이러한 풍족한 삶에 대한 희망에 부풀 서독국민들에게는 대량소비사회의 심각한 문제들과 서독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져가만 하는 생산수단의 폭력적인 독점화들이 그 당시까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60년대 중반 멈출 줄 모르고 고도성장을 이루던 서독의 경제기적의 시기는 끝나게 되었다. 1964년부터 서독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따라서 이윤의 현저한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량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미국 중심의 후기자본주의 세계에서 만성적 경제위기의 첫번째 징조인 "달러-홍수(Dollar-Schwemme)"는 서독의 경제구조를 극단적인 수출중속형으로 끌고갔다. 자본주의적 확대재산을 가속화시켜야만 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갈수록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더이상 제어되지 않는 만성적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 이 속에서 서독의 경제는 그 지속적으로 커져만 가는 수출중속성에 따라 더욱 더 심각하게 미국의 경제체제와 그 경제위기들에 빠져들게 되었다. 경제불황과 그에 따라 더욱 거세지는 시장경쟁은 갈수록 더욱 강한 폭력적인 독점화를 이끌고, 독점대기업의 이익에 따라 국가와 독점자본의 융합은 더욱 늘어갔다. 사회 및 그 사회구조의 공식적인 표명은 독점대기업의 이익에 따라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구성된 사회제도의 정치선전 안에서 보장되었다. 결국 서독정부의 경제정책은 산업생산의 무한한 확장으로 치닫게 됨으로써, 모든 자연자원은 점점 더 무분별하게 남김없이 사용되어졌고 환경은 갈수록 심각하게 오염되어졌다. 이로서 1966년에서 1967년 과잉생산에 의한 경제위기가 터지고, 실업은 늘어만 갔다. 마침내 이 과잉생산과 경제위기 사이의 모순은 정부의 정치위기로 나타났다.

서독 경제기적의 시기를 거치면서 60년대부터 육체노동 집약적인 일에 종사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사회적 중간계층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상류계층과 하류층은 전체인구의 10% 이하로 점점 줄어들었다. 계급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졌던 사회의 각 계층들은 이제 하나의 동일한 수평적 중간계층으로 평준화되었다. 이전에 "시민(브르주아지, Bourgeoisie)"으로 분류되었던 계층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과시욕구들을 버리고 대중매체를 따르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대다수의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부분의 사무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과 그 주변의 넓은 중간계층의 사람들을 이제는 더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수평적으로 평준화된 중간계층은 단일화된 계층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계층안에서 서로 다른 생활유형을 갖는 각 사회층마다 괴리된 경향들과 서로 나뉘어진 다양한 부분문화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었다. 그 속에서 각기 각종

마다 서로 다르게 나뉘어진 시각들과 의견들과 그리고 감정들과 인식형태들이 반영되었다. 이로부터 각각의 부분문화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경향들을 보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체제비판적인 시각들이 형성되어, 저마다의 다양한 체제저항적인 인본화개념들(Humanisierungskonzepte)을 이끌어 내었다.

60년대 중반 부터 덮쳐온 만성적인 경제적 위기는 실업률의 증가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대중매체, 특히 당시 새로운 강력한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은 복수주의(Pluralism)적으로 해석되어진 모든 종류의 광범위한 정보들을 시시각각 모든 이들의 눈 앞에 전달해 줌으로써, 이를 통해 전체 서독국민들의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50년대의 60년 경제성장을 통하여 서독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됨으로써, 이들의 일반적 교육수준이 그 이전에 비하여 급속도로 향상되었다. 이로서 수평적으로 평준화된 중간계층에서 각양 각색으로 형성된 체제비판의식들이 실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을 전후로 기존의 미국식 소비사회와 그 사회의 보수적인 사회질서에 반대하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다양한 저항운동들이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1967년에서 1968년 서독의 권력보수적 후기자본주의 사회시스템과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학생운동이 그 구체적인 구심점을 이루었다. 이 학생운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Frankfurter Schule)의 이론들, 특히 아도르노(T. W. Adorno)와 라이히(W. Reich) 그리고 마르쿠제(H. Marcuse)의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후기자본주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종의 혁명운동인 "신좌파(Neue Linke)"운동을 실천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여기에서 막스(K. Max), 레닌(W. I. Lenin), 그람시(A. Gramsci), 룩셈부르크(R. Luxemburg) 등의 혁명이론을 토대로 기존 제도권 내의 정당들에 대항하여 의회 밖에서 활동하였다. 이때 트로츠키(L. Trozki)의 "지속적 혁명(permanent revolution)"이론에 바탕을 둔 중국에서의 문예혁명이 알려지자, 모택동의 혁명과 그 이론은 "신좌파"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광범위한 문화적 민주화 개념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민중을 기반으로한 인본주의적 문화건설을 추구하는 체계적인 반권력운동(Antiautoritaetsbewegung)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비독단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광범위한 집회운동을 이끌어간 "신좌파"운동은 20년대와 30년대 유럽의 전 사회영역에 걸쳐 일어났었던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말살되어가는 개인성의 회복을 위한 인본주의운동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 68운동에서 우선 본보기가 된것은, 미국에서의 "반문화(Counter Culture)"를 지향하고 신비스럽고 낭만적이며 자연에 영합된 것들에 주 관심을 두는, 히피문화들이었다. 그래서 거추장스럽게 신경을 써야하고 스트

례를 주는 생활양식들(Verhaltensformen)에 대한 일종의 거부로서, 억압되지 않고 자유스러우며 흥겹고 또한 이러한 것이 넓은 의미에서 반권위주의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도출해내었다. 그 결과 이 운동의 첫반에 걸쳐, 모든 지배형태들에 대한 저항으로서, 단지 향락의 추구로만 보여지는, "성의 혁명(sexual revolution)"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점차 20세기 초기 독일파파들의 무정부주의 전통에 빠져들고, 갈수록 소그룹으로 분파되어갔다. 그 후 더욱 더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져, 각기 서로 다른 문화관념들에 따라 반권위적, 무정부적, 적군파적, 얼터너티브적(alternative), 혹은 페미니스트(feminist)적이거나 동성연애적인 사회운동이나 평화운동 또는 녹색운동 등 다양한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바뀌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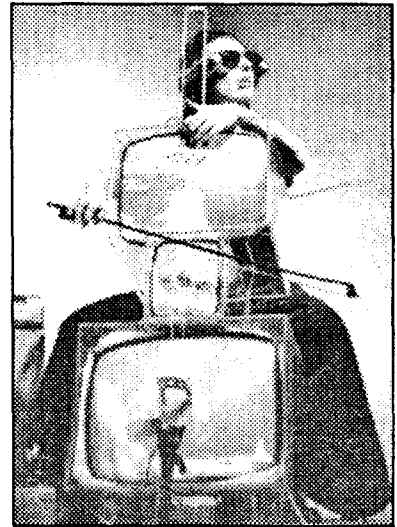
이 시기까지의 현대예술은 시민층의 지성적 엘리트(intellectual Elite)를 위한 일련의 과시적 예술이었다. 이들 엘리트문화의 지적인 현대성(Modernität)은 대량소비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의 증명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50년대와 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실주의적인 예술활동들은 억압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그 반면에 당시 이른바 순수예술에서의 모더니즘은, 그것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인 봉사의 역할을 제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해방(Befreiung der Kunst)"이란 논리 속에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현대예술은 결국 냉전시대의 이른바 "자유 이데올로기" 선전수단의 한 부분으로 되어지고, 갈수록 "자유"로운 것만을 지향하여, 현대예술, 그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추추되어졌다. 결국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예술을 위한 예술(Art pour l'art)"을 거부하고, 미학분야에서 "사회적" 예술을 세우고자 노력했던 마르크주의 이론들에서 영향을 받은, 현대적인 젊은 아방가드(Avantgarde) 예술가들의 새로운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예술분야에서도 1968년을 전후로하여 일련의 반예술활동들(Antikunst-Aktionen)이 전개되었다.

이 반예술 활동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전세계적인 젊은 아방가드 예술가들의 모임인 그룹 플럭수스(Fluxus)와 서독에서 요셉 보이스(Joseph Beuys)를 중심으로 한 반예술 활동들이었다. 이들은 단지 예술가 그 자신의 이기심의 충족만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되는 아름다운 예술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였다(1). 그리고 재료와 인간의 노동능력들은 건축과 디자인 또는 그래피 등의 응용예술분야와 같이 사회구조상의 특정 목적들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예술분야에서 재료와 인간의 노동능력들의 낭비를 없애고자 노력하였다(2). 그래서 이들의 예술활동들은 아름다운 예술을 제거하고 재료와 인간의 노동능력들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과도기적인 해결책들을 가지고서 선동적으로 이끌어졌다. 이러한 의식적인 반예술 활동들은 1910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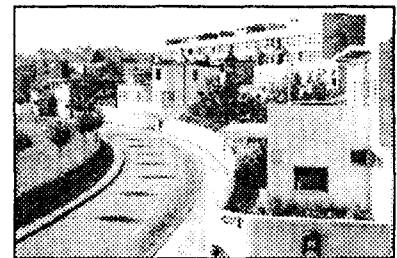
1925년 사이에 일어났던 "반예술(Antikunst)"운동에 영향을 받아 신미래주의(Neofuturism)적이고 신다다주의(Neodadaism)적인 예술들로 이루어졌다. 점차 이 아방가드적인 반예술들은 그 자체 안에서 예술의 최고 형태로 높여지고, 산업적인 관점에 따라 이끌려가는 산업-대중사회의 예술문화에 대항하는, 개인성의 관점에 따른 자발적인 예술의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로서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역시, 개인성 회복을 위한 68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하나의 또 다른 인본주의적 문화운동으로서, 기존의 후기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변질되어버린 제도권하의 기능주의 양식에 대한 거센 비판운동이 일어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6년에서 1967년 서독에서의 경제불황은 그 당시까지 멈출 줄 모르던 경제성장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했다. 위로부터 강행되는 대량소비사회는 점점 더 광대해지지만 하는 인간소외의 과정을 야기시키고, 그 속에서 인간의 감성은 획일화된 대량소비문화에 의해 더욱 더 위협적으로 희생되어졌다. 일상생활환경 속에서는 바둑판 모양의 도시계획과 마치 전쟁용 병커와도 같은 네모반듯한 콘크리트 건물들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 경직된 단순함만이 지배적이었다. 그 뿐 아니라 대기업들에서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의 도입에 의하여, 결국 모든 산업생산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전체적으로 통합된 획일화였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기초로한 후기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환경은 광범위하게 산업원자재로 소비되어지고, 상품화되어 더욱 더 짧아지지만 하는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에 따라 고갈되어지고, 사용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배출물과 다 사용된 쓰레기들에 의해 더러워지고 파괴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와 사회구조의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들은 1968년을 전후로 체계적인 저항운동들을 야기시켰다. 이 68운동은 직접적으로 정치에서의 기능주의와 의회정치상에서의 기능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즉, 개인성과 그에 대한 고려 등은 실질적으로 배제된 채, 권위적 압력들에 의해 더욱 강고해지기만 하는 형식들과 같은, 제도적으로 관념화되고 틀에 박힌 모든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조형에 대한 지배적인 고정관념들과 실행방법들에 대해 반대하여, 근본적인 것에서부터의 극단적으로 날카로운 비판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후기자본주의 생산시스템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기능주의가 이전에 없었던 극단적인 거센 공격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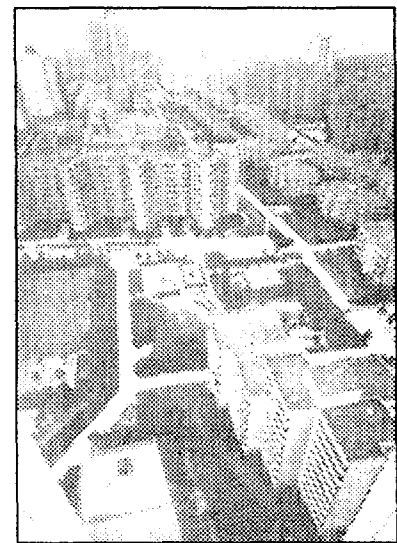
30년대의 인터내셔널 스타일(International Style)이 슈트트가르트(Stuttgart)의 바이센호프지들롱(Weissenhofsiedlung)을 걸걸질만 모사한 것과 같이, 당시 경제적인 이윤만의 추구에 부합되어 유행된 50년대의 인터내셔널 스타일에 의해 독일 대도시의 위성도시들은, 그 어떠한 건축적인 또는 미적인 질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된 채, 바둑판 모양으로 일렬로 늘어선 황량하



텔레-셀로(The Tele-Cello), 1971
백남준
(제리스트 C. 모어먼(C. Moorman)과 공동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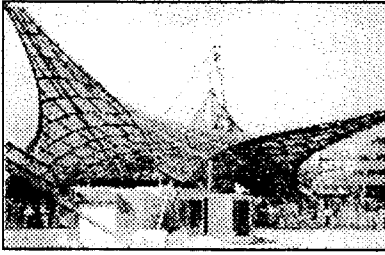
슈트트가르트 바이센호프지들롱
(Weissenhofsiedlung in Stuttgart),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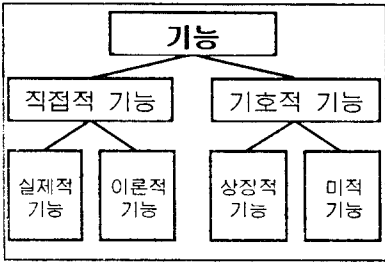
서베를린의 그로피우스 시(Stadt Gropius), 1960년대

1 Syring, M.L., "Um 1968: Konkrete Utopien in Kunst und Gesellschaft", pp. 18-20 참조

2 Schmit, T.에게 보낸 Maclunas, G.의 편지 in Syring, M.L., "Um 1968: Konkrete Utopien in Kunst und Gesellschaft", pp. 36 참조



뮌헨 올림픽 경기장, 1972
 건축가: 귄터 베니쉬(Günter Behnisch)
 서독 건축사에서 텐트식 지붕구조로 인하여 네모반듯하고 직각을 이루는 것을 벗어난 첫번째 전례점을 이루었다. 하우스크는 이 올림픽 경기장을, 그 텐트식의 지붕구조가 이루는 장식적인 요소들을 양식화한 기술적 형태를 통한, 상품선전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비판하였다.



작 무카로프스키의 "기능유형학(Typologie der Funktion)"의 개념도

3 Maldonado, T., Internationale Design Zentrum IDZ Berlin(ed), "IDZ Protokolle HfG Ulm", pp. 34-35

4 Raggl, F., Internationale Design Zentrum IDZ Berlin(ed), "Design als Postulat am Beispiel Italien", pp. 80

5 하우스크, W. F., 1936년 출생 베를린 자유 대학(Freien Universitaet Berlin) 철학과 교수
 그의 저서 "상품미학비판"에서, 우선 경제적 관계들과 기능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상품미학을 유추시켰다.

6 요헨 그로스, 1944년 출생 기계공학, 심리학 전공 브라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에서 산업 디자인 전공 그의 디플롬 논문 "확장된 기능주의와 경험적 미학"은 브라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철학박사 직 프리트 마저(Siegfried Maser)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후, 오웬바하 조형대학 산업디자인과의 교수로서, 그의 "확장된 기능주의"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7 요헨 그로스의 브라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에서의 디플롬 논문, 1973년 3월 지도교수: Prof. Dr. S. Maser Dipl. Soziologe E. Bauer

8 잔 무카로프스키(1891-1975) 체코의 철학자, 언어학자, 프라하 학파의 대표자

9 언어의미론(Semiotik): 제만틱(Semantik): 사물에 대한 기호, 즉, 의미
 전탁사(Syntax): 기호들 간(間)에, 그리고 다른 기호로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
 프라그마틱(Pragmatik): 기호와 기호사용자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 즉 유추(類推)

고 지루한 건물들로 왜곡되고 타락되었다. 특히 1960년에서 1965년 사이 건축분야에 미국에서 시작된 뉴 브루탈리즘(New Brutalism) 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그 내모반듯한 모습에다 상막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그대로 노출되자, 사람들의 생활환경은 극단적으로 황폐해졌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감성에 대해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폭력에 대한 고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우선 극단적으로 획일화된 현대건축에 의해 황량하게된 생활환경과 그 속에서 자행된 개인성 말살에 대한 고발에서 출발되어, 건축과 도시건축 분야에서부터 기존 제도권하에 틀어 잡힌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기능주의의 논쟁은 더 나아가 디자인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그 속에서 현대기능주의를 대표하는 울름 조형대학(Hochschule fuer Gestaltung Ulm)과 브라운 사(Braun AG)의 디자인이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당시의 서독 디자인 분야에서는 건축과 도시건축 분야와는 달리 네모반듯하게 경직된 단순함에 의한 극단적인 획일화가 전혀 지배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울름 조형대학의 영향을 받은 이델리 현대 디자인이 조형언어적으로 기계적인 네모반듯함과 극단적인 단순함을 지향하는 형식적 기술기능의 심미주의(formal technofunctional aestheticism)에 획일적으로 빠져 있었다(3,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전반에 걸친 긴 시간동안 "기능(Funktion)"의 개념정의를 중심으로한 기능주의 논쟁만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주류를 이루며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실용성에 기초한 관점에서부터 상품판매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에 대한 것까지, 건축과 디자인 이론분야에서 본보기가 될만한 다양한 토론들이 펼쳐지는, 광범위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볼프강 프리츠 하우스크(Wolfgang Fritz Haug)(5)의 "상품미학비판(Kritik der Warenaesthetik)"은 기능주의 비판운동에 그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여러가지 이론적 체계를 이루는 견해들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기능주의의 전통을 대량생산-소비의 사회구조 속에서 재해석 함으로써, 기능주의를 새로이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되는, "확장된 기능주의(Erweiterter Funktionalismus)" 이론으로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실이었다. 이 확장된 기능주의는 주변 사물의 기능은 결코 단편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것으로서 파악하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용의 다양한 측면들과의 상호관계하에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사고적 논리에 출발되었다. 따라서 "기능"의 개념은 이제 모든 합리적이고 또한 비합리적인 사용성들의 종합으로서 새로이 확장되어 정의되어졌다. 이 새로이 확장된 "기능"의 개념정의가 요헨 그로스(Jochen Gros)와 베른트 로바하(Bernd Loebach)에 의해 이끌어짐으로써, 대량생산-대량소비사회에서 인본주의를 기초로한 기능주의의 근본이념을 새로이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되는 "확장된 기능주의"가 형성되었다.

3.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

3.1. 요헨 그로스의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

요헨 그로스(6)는 1973년 브라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Hochschule fuer Bildende Kuenste Braunschweig)에서의 디플롬 논문 "확장된 기능주의와 경험적 미학(Erweiterter Funktionalismus und Empirische Aesthetik)(7)"에서 처음으로 확장된 기능주의적 "기능"의 개념정의를 이끌어내었다. 여기에서 그로스는 우선 제품을 수많은 "실제적 기능(praktische Funktion)"들 뿐만 아니라 "상징적 기능(symbolische Funktion)"들 그리고 "미적 기능(aesthetische Funktion)"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물로 파악하였다. 즉, 제품을 다양한 "기능"들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서 "상징적(symbolisch)"이고 "미적(aesthetisch)"인 "제품기능(Produktfunktion)"의 방법론적이고 경험적인 이해를 통하여, 디자인에서 사회적이고 심리적 차원의 것들을 전면에서 부각시켜야만 하는 필연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능주의가 오로지 사용자들의 "실제적(praktisch)"인 사용자치에 대한 욕구들만을 고려할뿐, "상징적"이고 "미적"인 "제품기능"의 틀 안에서의 "상징적"이고 "미적"인 사용자치에 대한 사용자들의 욕구들은 등한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요헨 그로스는 먼저 잔 무카로프스키(Jan Mukarovsky)(8)의 "언어 의미론(Semiotik)(9)"적 이론인 "기능 유형학(Typologie der Funktion)"을 기초로하여 "제품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능"의 개념은 모든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관계들, 즉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을 현실화 시키는 디자인 제품과 사용자 사이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서 디자인 제품의 "기능"을 "실제적 기능" 그리고 "기호적 기능(zeichenhafte Funktion)"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기호적 기능"은 다시 "미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으로 분리시켰다. 이로써 기능주의는 "실제적 기능"의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주의에서 최상의 형태는 단지 "실제적 기능"만의 최적화일 뿐이라고 분석되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기술적 최적화가 당연히 아름답다는 기능주의자들의 독선적 견해가 생겼다고 설명되었다. 또한 그로스는 심리분석학적인 관점에서, 기능주의에서는 축소되고 제한되어졌던 개인의 욕구구조를 전제로 했고, 실제 개인의 욕구구조에 대한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서 기능주의에서는 전적으로 "실제적 기능"의 최적화만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상징화 시키고 미적인 조화를 바라는 욕구들을 자의적으로 무시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그로스에게 있어서 최상의 형태는, 디자인 제품과 사용자 사이에서 단지 "실제적 기능"의 관계만이 아닌, "상징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최적화 또한 내포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즉, 기능주의의 개념의 확장은 디자인 제품과 사용자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단지 사용가치 개념의 확장만이 아닌 "에르고노미(Ergonomie)" 개념까지, 즉 "실제적 에르고노미(praktische Ergonomie)", "상징적 에르고노미(symbolische Ergonomie)" 그리고 "미적 에르고노미(aesthetische Ergonomie)" 개념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이 세가지 "기능"의 모든 종류가 최상의 형태를 위해 제 각각 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그로스의 "확장된 기능주의"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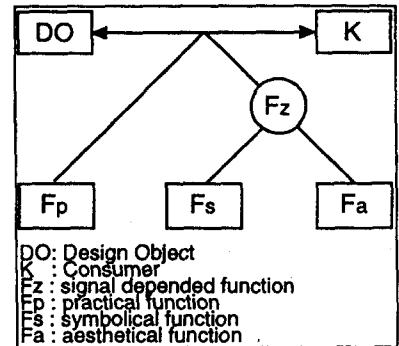
3.2. 베른트 뢰바하의 상품기능 이론

그로스에 의해 제시된 확장된 기능주의적 "기능"의 개념은 그 후 1976년에 발행된 베른트 뢰바하(Bernd Loebach)(10)의 저서 "산업디자인: 산업제품형태의 기초(Industrial Design: Grundlagen der Industrieproduktgestaltung)(11)" 그리고 1979년에 발간된 "산업 디자인 강의(Industrial Design im Unterricht)"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뢰바하는 먼저 산업디자인을 "환경조형(Umweltgestaltung)(12)의 범주 안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을, 산업적으로 생산가능한 "사용제품(Gebrauchsprodukt)"들을 사용자와 사용자 그룹의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욕구들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산업디자인이내에 요구되는 과제로서, 한편으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의 관심에 부합되게 시장을 확보하고 구매를 유발시키도록 산업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생산과정 내부에서 디자이너 자신의 디자인활동을 통하여 사용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서의 디자인활동을 통하여 산업제품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창조된다고 정의하였다. 이로부터 인본주의적인 사용가치에 기초한 디자인 이론을 이끌어내었다. 이 사용가치 중심의 디자인 이론은, 즉 디자인의 실천적 활동은 사용가치의 향상을 통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적으로 생산된 "환경(Umwelt)"의 비판적인 사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이론에서는 제품의 사용을 주체(Subjekt)와 객체(Objekt), 즉 사용자와 제품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相互作用)의 관계로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실제적 기능"과 "미적 기능"은 작용(作用)을 성립시키는 요소들로서 객체적 측면에 관계된 것으로, 그리고 "이론적 기능(theoretische Funktion)"과 "상징적 기능(symbolische Funktion)"은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주체적 측면에 관계된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품의 인지과정(Wahrnehmungsvorgang) 속에서 객체적 측면의 "기능"들은 주체적 측면에 대한 객체적 측면의 작용으로서, 그리고 주체적 측면의 "기능"들은 제품사용자(Produktbenutzer)의 정신심리적(psychisch-geistig)인 존재에 관련된 욕구충족으로서 규정되었다. 이러한 양 측면의 "기능"들은 사용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하(下)에 변증법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설명되었다. 즉, 사용과정에서 제품의 "기능"들은 사용자(주체)와 제품(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험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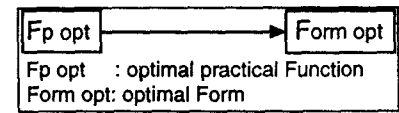
수 있고, 이로써 욕구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뢰바하는 여기에서 우선 물리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모든 사용의 특성들을 "실제적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용과정에서 "실제적 기능"들은 첫째, "실제적" 사용가치로 경험되어진다. 그리고 "미적 기능"들은 우선 구매행위 이전에 "인지과정"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미적" 사용가치로 경험되어진다. 또한 모든 "심리감성적(psychisch-sinnlich)"인 사용의 "인지적 특성(Wahrnehmungseigenschaft)"들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것들의 "감성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미적 기능"들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제품의 미(美)에 대한 핵심적 개념으로서 "조형(Gestalt)"이 제시되었다. 이 "조형"은 그에 알맞는 "조형구성(Gestaltaufbau)"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조형구성"은, "질서(Ordnung)"와 "복잡성(Komplexitaet)"이라는 "조형인자(Gestaltungsfaktor)"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질서"와 "복잡성"이라는 "조형인자"는, 형태와 재료와 표면질감 그리고 색채라는 "조형요소(Gestaltlement)"를 가지고서 조형(造形)함으로써 표현된다. 따라서 "미적 기능"들은 "조형"을 통해 표출(表出)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조형"을 통해 제품의 사용 및 조작을 도와주는 "기능"인, "지시기능(Anzeichenfunktion)" 또한 "미적 기능"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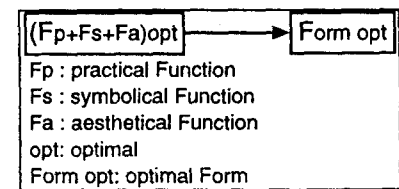
또한 뢰바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관계들에서 "실제적 기능"과 "미적 기능"을, 주체적 측면에 연관된 "이론적 기능"과 분리시켰다. "이론적 기능"은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제품의 근간(根幹)에 내재(內在)하여, 사용자의 의식과정 속에서 표출(表出)되어지는 사고들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기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론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들을 예로 들수 있을 것이다. 책 안에서 개념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는 "이론적" 표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표시들은 책이란 제품에서 "이론적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매개체(媒介體)이다. 일반적인 "사용제품"들에서 "이론적 기능"은 "실제적 기능"과 "미적 기능"을 통해서 매개(媒介)되는, 일종의 하부구조(下部構造)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론적 기능" 혼자서는 제품의 물질적 존재에 종속되어지지 못하고, 단지 사용자의 의식개발 수준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진다. 그에 반하여 "미적 기능"은 더 나아가서 주체적 측면에 연관되고, 사용의 모든 정신적, 심리적 또한 사회적 측면들에 의해 명시되는 "상징적 기능"의 근본(根本)으로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미적 기능"은 그 "미적" 기본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상태에 의해서, "감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표현모습으로 설명된다. 또한 "미적 기능"은 그 "미적" 기본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상태를 가지고서, 다른 삶의 영역으로 사고의 결합을 이끄는, 즉 "미적" 기본요소들과 그 요소들을 통해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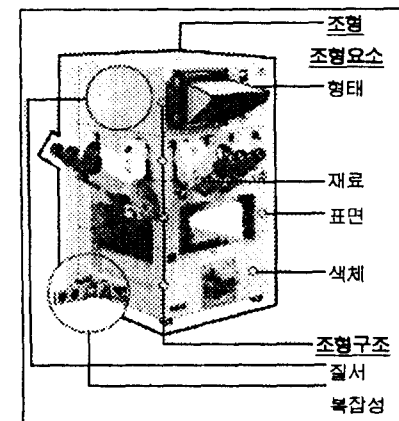
요한 그로스의 "확장된 기능주의"에서 "기능"의 개념도



요한 그로스에 따른 기능주의적 조형관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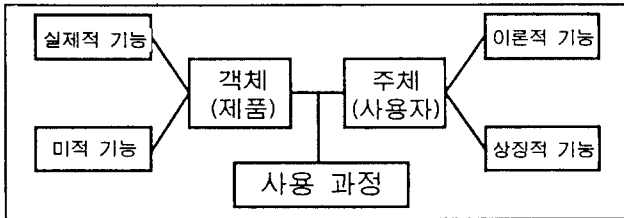


요한 그로스에 따른 "확장된 기능주의"적 조형관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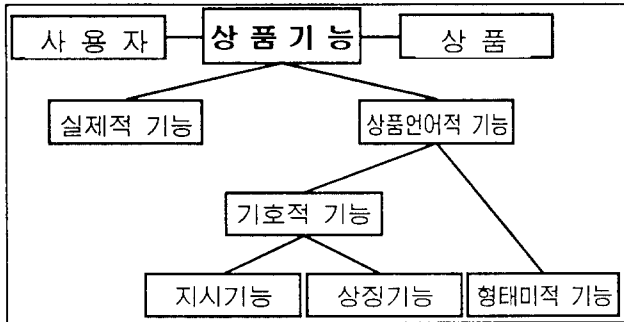


미학에서 중요한 기본개념:
형상 - 형상의 기본요소 - 형상구조
(연구용 현미경 Zeiss 'Axiomat'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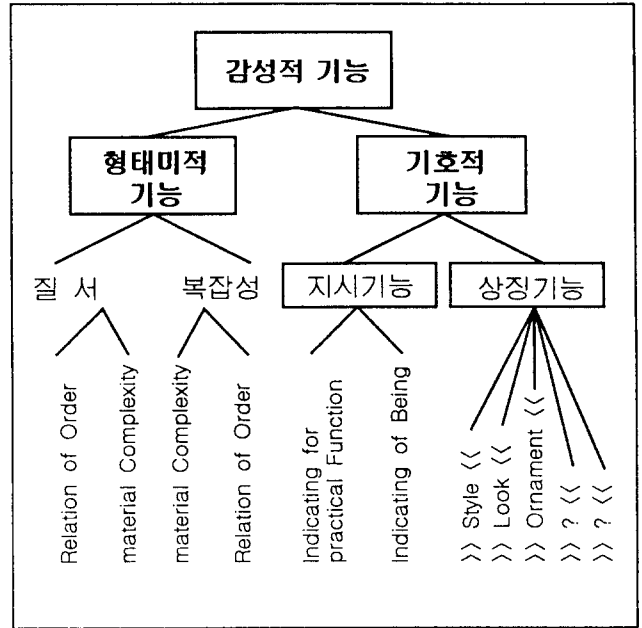
- 베른트 뢰바하, 1941년 출생 산업디자인사, 사회학자, 미술가 브라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 베른트 뢰바하의 "산업디자인: 산업제품 조형의 기초"는, "공업디자인 개론 (베른트 뢰바하/신수길)"로 번역되어 1981년 미진사에서 발행.
- 환경조형(Umweltgestaltung):
 - 사회와 개인의 개발을 위한 최적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인간의 환경에서 자연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또는 기술적인 모든 요소들의 광범위한 사회적 통일을 성취해내는 조형활동
 - 인간과 그 물질환경(物的環境)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의 문제들을 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생활환경 및 그 문화의 발전을 창출하는 과학적인 조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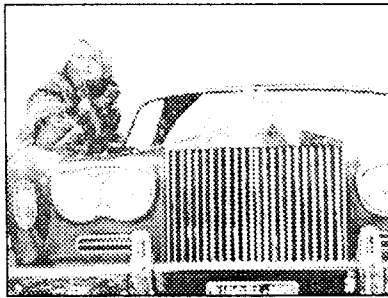
베르트 뢰바하의 "기능" 개념도:
 사용과정에서 사용자(주체)와 제품(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제품의 "기능"들은 경험되어질 수 있고, 사용자의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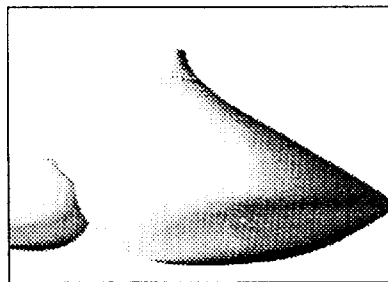
*"상품언어이론"에 따른 기능분리의 개념도



요헨 그로스의 "감성적 기능" 이론에 따른 기능분리의 개념도



지위의 상징, Rolls Royce
 (그리스 신전을 모티브로 양식화한 전두부
 그림은 부를 상징)



성적 상징, 로렌탈 꽃병 "Pollo", 1971
 (여자의 가슴을 모티브로 양식화한 꽃병은
 성을 상징)

에 관계된 다른 "기능"들을 이끄는 매개수단으로 설명된다. 이로부터 "상징적 기능"은 제품의 "인지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학습된 이전의 경험과 감정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정신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개념정의의 바탕으로 하여, "설계자(Konstrukteur)"는 제품의 사용가치개발에서 "실제적 기능"의 최적화를 근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디자이너는 "미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의 최적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3. 오펜바하 조형대학의 상품언어이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장된 기능주의"적 "기능"의 개념들은, 오펜바하 조형대학(Hochschule fuer Gestaltung Offenbach)에서 디자인 이론과목의 중요한 기본바탕으로서, 특히 요헨 그로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그로스는 먼저 "인간-사물-관계(Mensch-Objekt-Relation)"의 연구를 통해서, "좋은 형태(gute Form)"는 더 이상 일차원적인 "실제적 기능"의 최적화만의 결과가 아닌, 또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기능"들의 최적화를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감성적 인지(sinnliche Wahrnehmung)"의 이론에 기초하여, 심리적인 "인간-사물-관계"로서 "감성적 기능(sinnliche Funktion)"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그로스의 "감성적 기능"은 "형태미적 기능(formal aesthetische Funktion)"과 "기호적 기능(zeichenhafte Funktion)"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기호적 기능"은 다시 "지시기능(Anzeichenfunktion)"과 "상징기능(Symbolfunktion)"으로 분리된다. 이로써 "확장된 기능주의"적 이론에 입각한 구체적인 "기능"분리의 개념도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분리의 개념은 70년대 특히 오펜바하 조형대학에서 발전시킨 "상품언어이론(Theorie der Produktsprache)"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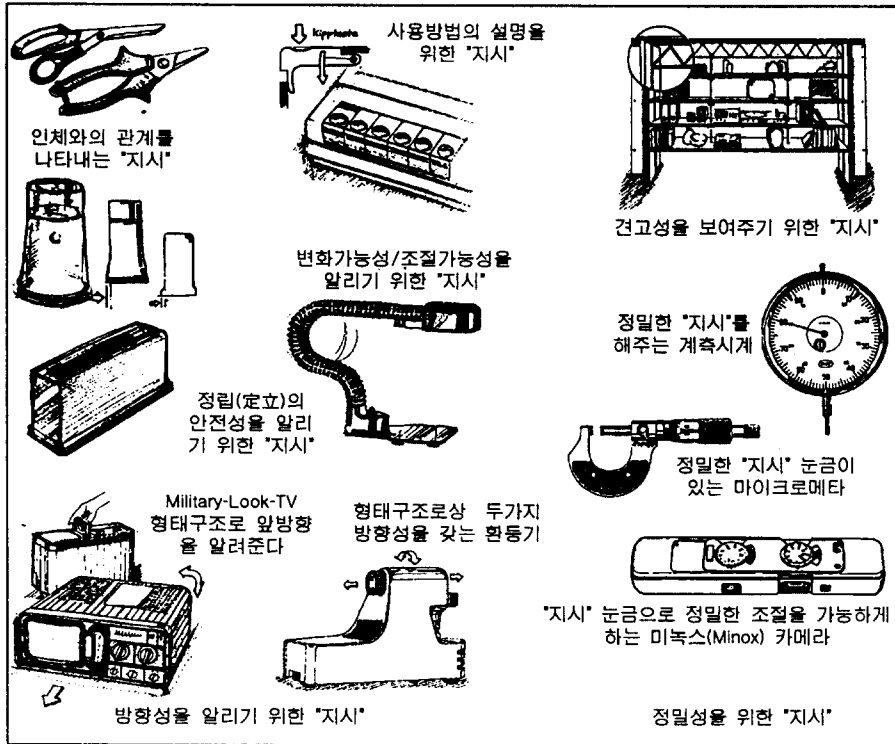
"상품언어이론"에서 제품의 "기능"들은 각

각 그 경향에 따라 "실제적 기능"과 "상품언어적 기능(produktsprachliche Funktion)"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상품언어적 기능"들, 즉 요헨 그로스의 "감성적 기능"들의 나열과 종속은 수학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직관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3). 여기에서 "실제적 기능"으로 표현되는 모든 "인간-사물-관계"들은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통하여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상품의 작용을 통해서 이끌어진다고 보았다. 그에 반하여 "상품언어(Produktsprache)"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통하여, 즉 심리적인 상품의 작용들로써 매개되는 "인간-사물-관계"들로 설명되었다. 이로써 "형태미적 기능"과 "지시기능" 그리고 "상징기능", 이 세가지 "기능"이 "상품언어이론"의 핵심을 이루었다.

"형태미적 기능"은 그 내용적 의미가 단독으로 독립되어 관찰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품언어"적 "기능"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자면 "형태미적 기능"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순수한 "신택스(syntax)(14)"적인 수단들로서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미적 기능"은 크리스티안 폰 에렌펠스(Christian von Ehrenfels)에 의해 "질서"와 "복잡성"이란 두가지의 "조형요소"를 기초로 하여 설명되어졌다. 여기에서 기능주의적 전통은 목적설정에 있어 "질서"를 이루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절대적인 자각억제, 즉 감성억제에 집착해 있었다고 보았다. 그에 반하여 "복잡성"이라는 목적설정에 있어서는 재료, 표면, 질감, 배열구조, 색채, 제품 그래픽 등과 같은 "형상"을 규정하는 요소들이 핵심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형태미적" 이론을 기초로, 디터 만카우(Dieter Mankau)는 "부가적(additiv)", "접합적(integrativ)" 그리고 "통합적(integral)"이란, 또 다른 하나의 디자인 법칙을 이루는 "형태미학(Formal aesthetik)"을 발전시켰다.

13. Buerdek, B. E., "Design: Geschichte, Theorie und Praxis der Produktgestaltung", pp. 182 참조

14. 신택스(Syntax)적 영역: 언어의미론(Semiotik) 상(上)에서 기호들 간(間)의 형식적 관계, 그리고 또한 다른 기호로 이끌어지는 관계



리차드 피셔의 "지시기능"에 대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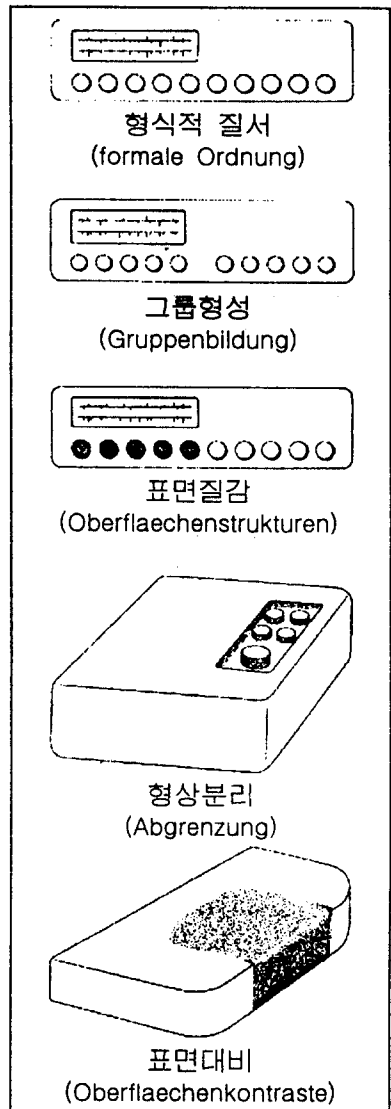
그리고 의미전달의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상품언어적 기능"들은 "기호적 기능"으로 정의되고, 이 "기호적 기능"은 다시 "지시 기능"과 "상징기능"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에서 "지시(Anzeichen)"와 "상징(Symbol)"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미국의 철학자 수잔 랭어(Susanne Langer)의 "지시개념(Anzeichenbegriff)"과 "상징개념(Symbolbegriff)"으로부터 이끌어졌다:

- "지시"는 항상 한 사물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존재에 관여한다. 그에 반하여 "상징"은 그 대상물의 존재유무(存在有無)와는 관계없이, 그 어떤 다른것들 혹은 아주 상이(相異)한 것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 "지시"는 그 어떤 기대되어지는 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시" 대상물의 존재를 관찰자에게 일깨워주는 반면에, "상징"은 하나의 행동양식에 대한 표상(表象)들을 불러일으킨다. 즉, "지시"는 그 대상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상징"은 우리에게 그 "상징"의 대상물을 표출(表出)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지시"는 "실제적 기능"들에 연관된 것이다. 반면에 "상징"은 우리에게 기술적인 특징이나 실제적인 제품의 기능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것들과는 전혀 무관한, 즉 문화적이고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것 등의 관계들을 나타내준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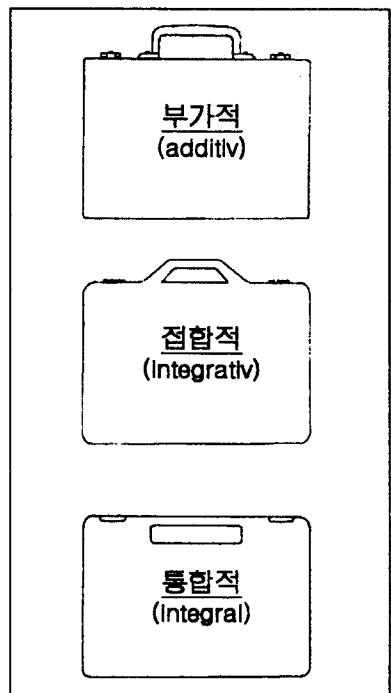
"지시"는 그 어떤 "기호적 기능"으로서, 지시대상물의 직접적인 현실적 존재를 바탕으로 하여 관찰자에게 그 어떠한 기대되는 적절한 행위를 인식시켜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시"는 한 제품의 "실제적 기능"에 관계되는, 즉 제품의 기술적인 기

능들을 시각화(視角化)시키거나 또는 제품의 취급과 사용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질서"와 "복잡성"이라는 "조형요소"들을 가지고서 조형(造形)함으로써 이끌어지는 "형태미적"인 특징들인 "형상대비(Kontrast)"와 "색대비(Farbkontrast)", 그리고 "표면질감(Oberflächenstrukturen)"과 "형상분리(Abgrenzung)", 또는 "그룹형성(Gruppenbildung)" 등을 통해서 "지시"는 이끌어진다. 이러한 "지시 기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리하르트 피셔(Richard Fischer)에 의해 이루어졌다. 리하르트 피셔는 "형태미학"과 그에 따른 "지시"와 "상징"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지시"에 대한 조형에서의 몇가지 중요한 판단기준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세한 예들들어 제시하였다: "방향성(Ausrichtung)", "정립(定立)기능(Standfunktion)", "견고성(Stabilität)", "변화가능성(Veraenderbarkeit)"/"조절가능성(Einstellbarkeit)", "사용성(Bedienen)", "정밀성(Praezision)", "인체와의 관계(Bezug zum menschlichen Koerper)"(16).

그리고 "상징기능"은 대상물에 표현된 것들이 그 대상물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존재와는 무관하게 작용하는, 즉 그 어떤 표상을 가지고서 결합되어지는 "기호적 기능"들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상징기능"들 안에서, 기술적 특징들이나 "실제적 기능"에 관계된 것을 떠나,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사회경제적인 것 등의 관계들이 한편의 "삶의 역사(Lebensgeschichte)"를 위한 표현으로서 반영된다. 그리고 "상징"에 대한 조형적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것들로는 양식(Style)이나 룩(Look) 또는 장식(Ornament)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유행을 기초로한 스타일링(Styling)과 코퍼레이트 디자인(Corporate Design) 그리



리하르트 피셔의 이론에 따른 "지시" 조형의 예



디터 만카우의 이론에 따른 부가적-접합적-통합적(additiv-integrativ-integral) 조형의 예



조형개발에서 나타나는 "상징"실험의 예
 Franz Schneider Brakel, FSB의 광고:
 "당신은 어떤 문손잡이 유형일까?
 (Welcher Klinkentyp sind Sie?)"



다 써버린 타이어로 만든 소파, 1974
 Des.: Gruppe "Des-In"

15. Gros, J., "Grundlagen einer Theorie der Produktsprache, Heft 1: Einfuehrung", pp. 67-68 참조

16. Fischer, R., "Grundlagen einer Theorie der Produktsprache, Heft 3: Anzeichen-funktionene" 참조

17. Mueller, R., "Des-In & Entwurfsbeispiele fuer eine alternative Produktionsform" 참조

18. Buerdek, B. E., "Design: Geschichte, Theorie und Praxis der Produktgestaltung", pp. 238-243 참조

19. Pahl, G./Beitz, W., "Konstruktionslehre: Handbuch fuer Studium und Praxis" 참조

고 특히 포스트 모던 디자인 등에서 조형컨셉(Gestaltungskonzepte)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어, 그 가치가 매우 높게 올려졌다.

4.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의 영향

서독에서의 기능주의 비판운동은 무엇보다도 우선 "사회적인 조형(sozialen Gestaltung)"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서, 울름조형대학에서 인본주의적 이상실현을 위해 제시한 "사회-디자인(Sozio-Design)"을 토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본주의적 이상에 기초한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은 오늘날까지 서독 디자인 이론의 핵심을 이루어 왔고, 또한 디자인 실무에서도 다양하게 실험되어지고 적용되어져왔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70년대 중반부터 "생태문제(Oekologieproblematik)"들이 직접적으로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환경조형(gesellschaftliche Umweltgestaltung)"을 이루어냄으로써, 사회와 "생태(Oekologie)"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도권 하(下)에서의 전문적인 디자인활동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끌어진, "Do it yourself"-디자인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룹 데스인(Des-In)이 그 대표적 예로서, 그들의 디자인활동 속에서 "리사이클링 디자인(Recycling Design)"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었다.

오펜바하 조형대학에서 형성된 그룹 데스인은 "상품언어이론"을 그들의 디자인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17). 여기에서 새로운 "생태미학(oekologische Aesthetik)"을 기초로 하여 대안적인(alternative) 디자인을, 즉 "리사이클링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17). 이 과정에서 그룹 데스인은, 기존의 산업생산형태와 새로운 수공업생산형태의 통합(Synthese)을 이루고자, 사용자가 직접 손으로 조립하여 완성시키는 반 완성품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방식을 통하여, 사용자가 제품을 완성시키는 생산노동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 이렇게 완성된 것들이 사용자의 욕구에 최적으로 부합되는 길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공방을 갖추고, 그곳에서 생산한 "리사이클링 디자인" 제품들을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디자인이 과거의 수공업생산방식에 다시 의존하게 됨으로써, 다소간 사물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수공예적인 과거로의 도피를 통하여 디자인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길로 이끌려 갔다.

또한 오펜바하 조형대학에서 개발된 "상품언어이론"은 80년대에 "상품 세먼틱스(Product Semantics)"로 미국에 소개되었다(18). 그러나 디자인을 상업적 그래픽의 하나로 이해하는 미국의 스타일리스트(Stylist)들에게 "상품 세먼틱스"는, 그들의 그래픽적인 공상을 상품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주는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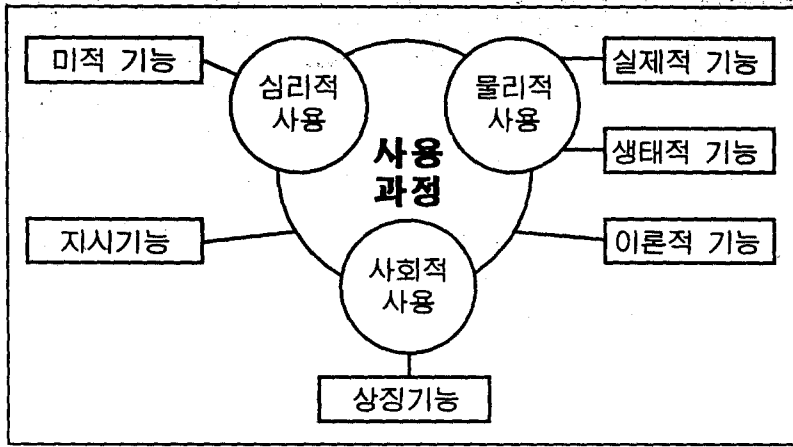
그래서 "상품언어이론"에서 "상징기능"만을 따로 떼어내서 부각시키고, "상징기능"만을 가지고서 "상품 세먼틱스"로 개발시켰다. 그 결과 "상품언어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인본주의적인 "환경조형"의 이상은 미국의 "상품 세먼틱스"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품언어이론"의 조작성에 대한 윤리와 그 방법 또한 간과되었다. 오로지 상업주의적인 이해에 부합되는, 상품에서 "상징기능"만을 기초로한 스타일링(Styling), 즉 상품화장으로 발전되었다. 그에 따라서 70년대 일상생활용품에 만연되었던 "네오키치(Neokitsch)"가 "상징"을 기초로한 "상품 세먼틱스"이론에 힘입어 90년대에 다시 부활되고,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스타일링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문화 속에서 스타일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스러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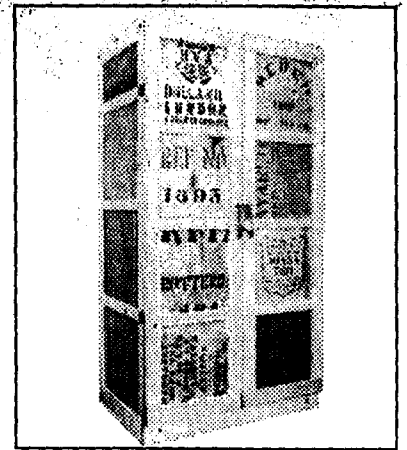
인본주의적 "환경조형"의 이상을 기초로한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은 서독에서 체계적인 디자인 이론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이로서 "미적 기능"과 "상징기능" 그리고 "지시기능"은 오늘날 서독 디자인 이론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 전체적인 인간의 환경을 고려하는 디자인 이론적 개념으로서, "생태적 기능(oekologische Funktion)"은 오늘날 더욱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생태적 기능"은 제품의 물리적인 사용과정에서, "실체적 기능"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객체"에 연관된 기능으로서 정의된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확장된 "기능"들의 개념을 새로이 재정의(再定立)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제품의 사용과정은 그 기본에 있어서 "물리적 사용(Physisches Benutzen)"과 "심리적 사용(Psychisches Benutzen)" 그리고 "사회적 사용(Soziales Benutzen)", 이 세가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실체적 기능"과 "생태적 기능"은 제품의 "물리적 사용"의 과정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그리고 "미적 기능"은 "심리적 사용"에 의해, "상징기능"은 "사회적 사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진다. 그와 반대로 "지시기능"은 "심리적 사용"의 과정 속에서 사용자의 사회적인 경험에 의해 발견(發現)된다. 그리고 "이론적 기능"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내재(內在)하여, 사용자의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사용과정 속에서 표출(表出)되어지는 사고들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확장된 "기능"의 개념은 우선 디자인개발의 과제분석단계에서 그 분석의 대상과 연결고리들을 명료하게 해준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바로 요구목록(Anforderungskatalog)(19)을 틀림없이 작성할 수 있게 이끌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요구목록만이 디자인 개념설정의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길을 제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기초로 하여, 물리적 사용과 심리적 사용 그리고 사회적 사용 사이의 삼각관계론으로 발전시킨 "확장된 기능"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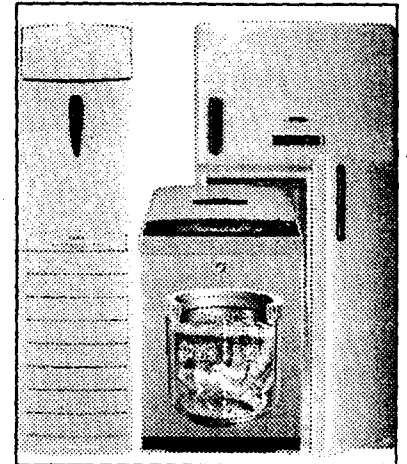


공장에서 버린 나무로 만든 옷장
Des.: Gruppe "Des-In"

시할 수 있고, 또한 그 이후의 평가과정에서도 정확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확장된 "기능"의 개념은 오늘날의 대량생산-대량소비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현실과의 관계에 그 바탕을 두고있기에, 확장된 "기능"의 개념에 따른 기능들의 최적화는 바로 디자인제품을 통한 인본적 환경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외국으로부터 본질을 무시한채, 형식만 들여온 다양각색의 디자인이란 이름이 붙은 겉데기에 대한 견해들만이 난무해 있다. 또한 독점-대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생산의 확장으로 인하여 요구되어지는, 잠재수요의 증대와 소비의 확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디자인이란 명칭하에 스타일링이 도입되고 급속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식의 스타일링(20)을 숭배하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심지어는 독점대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급격하게 빨라지지만 하는 모델변경주기 속에서 갈수록 더욱 요란하게 치장된 상품들이 확립적으로 공급되고있다. 이 속에서 개인들 각자의 문화적이고 미적인 다양한 욕구들은 철저히 짓밟히고, 생활환경은 극도의 혼란에 빠짐으로써, 우리들 개인들의 인간성 말살과 사회문화적 환경파괴의 문제들은 갈수록 극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 건축분야에서도 경제성이란 미명

하에 그 어떠한 건축적인 기본개념조차 무시한채, 극도로 인간의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바닥식이나 상자팍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치달고있다. 또한 한국의 지배 엘리트층에 팽배해있는 사대주의적 근성에 따라, 서구의 포스트모던 스타일이나 하이테크 스타일 또는 해체주의적 스타일 등을 도입하여 획일적인 유행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우리의 생활환경은 총체적인 비인간화로 치닫해되었다. 여기에 오늘날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건축물이 지배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상징화로 나타남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 개인들이 말살되고, 단지 지배대상물로 전락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주변환경에 팽배해 있는 극도로 심각한 문제들은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사회현실속에서 문제의 본질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본적인 사회윤리관을 건축과 디자인 이론에 정립시키고 개발해 나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회의 총체적인 사용의 과정속에서 정의된 "기능"의 개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하게 하는 기본적인 도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본주의적인 건축과 디자인 이론개발에 기본이 되는 틀을 이끌어줄것이다.



96/97년형 삼성 에어컨, 대우 세탁기와 냉장고 (96/97년도 국내 가전3사의 제품들은 모두 동일하게, 개별제품들의 사용특성과는 무관한 부풀린 곡선들과, 고급품을 상징하는 호마이가 재질의 이미테이션 그리고 첨단전자장비를 상징하는 우주공상과학적인 분위기를 느끼게하는 표시장치의 장식으로 일관되어 있다.)

20.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단지 최대의 소비 충동을 이루고자, 극도로 혼란스럽고 요란한 치장을 목적으로하는, 미국 자동차 디자인분야에서, 특히 디트로이트 지역을 중심으로한 자동차 디자인분야에서 40년 대부터 이끌어온 스타일링을 일컬음

6. 참고서적

Baensch, Dieter(ed.)
"Die fuenftzig Jahre - Beitrage zu Politik und Kultur"
Gunter Narr Verlag, 1985 Tuebingen

Buerdek, Bernhard E.
"Design: Geschichte, Theorie und Praxis der Produktgestaltung", DuMont Verlag, 1991 Koeln

Fischer, Richard
"Grundlagen einer Theorie der Produktsprache: Anzeichenfunktionen", Hochschule fuer Gestaltung Offenbach, 1984 Offenbach a.M.

Gros, Jochen
"Erweiterter Funktionalismus und Empirische Aesthetik"
Diplomarbeit an der Staatlichen Hochschule fuer Bildende Kuenste Braunschweig, Selbstverlag, 1973 Braunschweig
"Sinn-liche Funktionen im Design: Zur Gegenstandsbestimmung einer designspezifischen Theorie"
in Form Nr. 74/1976
"Sinn-liche Funktionen im Design: Entwurfsbeispiele zu theoretischen Begriffen und Hypothesen"
in Form Nr. 75/1976

"Grundlagen einer Theorie der Produktsprache: Einfuehrung", Hochschule fuer Gestaltung Offenbach, 1983 Offenbach a.M.
"Grundlagen einer Theorie der Produktsprache: Symbolfunktionen", Hochschule fuer Gestaltung Offenbach, 1987 Offenbach a.M.

Haug, Wolfgang Fritz
"Kritik der Warenaesthetik"
Suhrkamp Verlag, 1971 Frankfurt a.M.

Haug, Wolfgang Fritz(ed.)
"Warenaesthetik: Beitrage zur Diskussion, Weiterentwicklung und Vermittlung ihrer Kritik", Suhrkamp Verlag, 1975 Frankfurt a.M.

Hermard, Jost
"Kultur im Wiederaufbau: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5-1965", Nymphenburger Verlag, 1986 Muenchen
"Die Kultu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65-1985"
Nymphenburger Verlag, 1987 Muenchen
Internationales Design Zentrum IDZ Berlin e.V.(ed.)
"Design als Postulat am Beispiel Italien", 1973 Berlin

"IDZ Protokolle - H IG Ulm", 1987 Berlin

Lee, Byeong-Jong
"Analyse der Entwicklung des deutschen Industriedesign 1945-1995", Diplomarbeit an der Hochschule fuer Bildende Kuenste Braunschweig, Selbstverlag, 1995

Loebach, Bernd
"Industrial Design: Grundlagen der Industrieproduktgestaltung", Verlag Karl Thiemig, 1976 Muenchen
"Industrial Design im Unterricht: Ein Arbeitsbuch fuer die kritische Auseinandersetzung mit industrielle produzierter Umwelt", Otto Maier Verlag, 1979 Ravensburg
"Design durch alle: Alternativen zur fremdbestimmten Massenproduktkultur", 1983 HBK Braunschweig,

Pahl, G./Beitz, W.
"Konstruktionslehre: Handbuch fuer Studium und Praxis"
Springer-Verlag, 1977 Berlin, Heidelberg, New York

Syring, Marie Luise
"Um 1968: Konkrete Utopie in Kunst und Gesellschaft"
DuMont Verlag, 1990 Koeln